

■ <요약> 소비 구조 측면에서 본 지식 경제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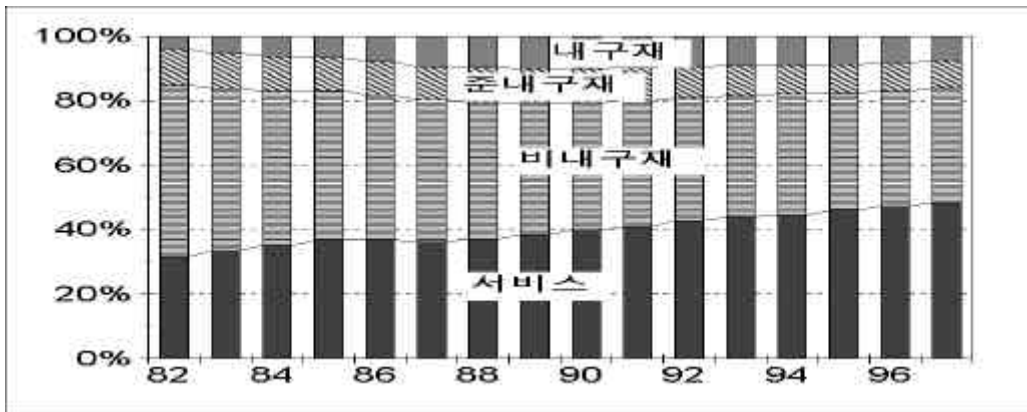
- 우리 나라 전체 가계 소비에서 서비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 -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1982년 약 30% 수준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1997년에는 45% 수준에 이르고 있음
 - 소비의 목적별 분류 항목인 식료품, 교양 오락,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명목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내구재나 비내구재 성격의 항목에서도 오디오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음반 등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한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
- 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지식 활동이 상품화하여 소비되는 비중이 확대됨을 의미
 - 따라서 인간의 지식 활동에 근거한 산업 부문의 소비 여건은 90년대에 들어서 점차 성숙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

□ 국내 소비 구조 변화 추세

- (소비구조와 지식경제) 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인간의 지식 활동이 상품화하여 소비되는 비중이 확대됨을 의미

- 서비스는 내구재나 비내구재와 같이 유형의 상품이기는 보다는 인간의 사고와 활동이 그대로 상품화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음
-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증가는 지식 경제의 핵심 요소인 인간의 지적 창조 활동이 상품화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확대됨을 의미할 수 있음
- 국내 가계 소비 구조 추이를 분석해보면 우리 경제에서 지적 창조 활동에 기반을 둔 상품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< 국내 가계 소비 지출의 형태별 비중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국민계정
주 : 경상가격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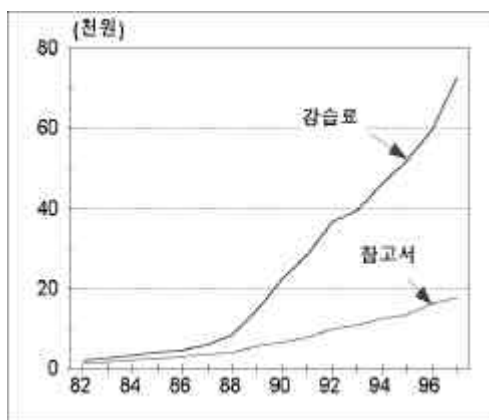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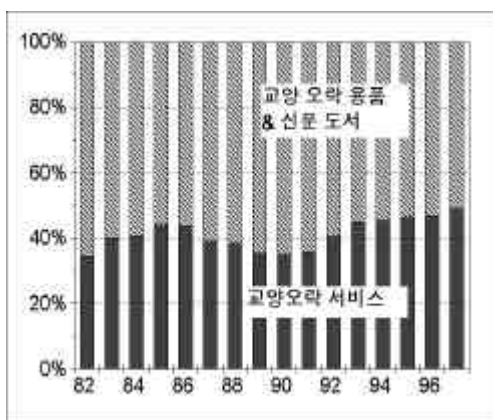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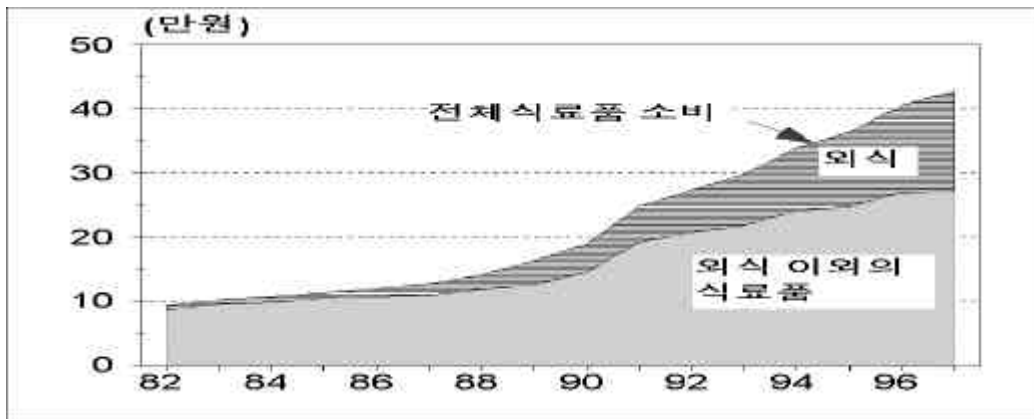
- (서비스 부문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) 90년대 우리 나라 소비 구조 변화는 서비스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구재 비중의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음

- 전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1982년 약 30% 수준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1997년에는 45% 수준에 이르고 있음
- 내구재 비중은 80년대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0년대 초에는 전체의 10%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- 그밖에 비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비중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

□ 소비 부문별 구조 변화의 특징

- (소비 부문별 서비스 비중 추이) 소비의 목적별 분류 항목인 식료품, 교양 오락, 교육 등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
 - 식료품 소비에 있어서는 곡류와 야채류와 같은 비내구재 형태보다 서비스 형태인 외식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 - 교양 오락 부문의 소비는 80년대 중반부터 각종 가전 내구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교양 오락 용품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나, 90년대에는 각종 문화 활동 관련 관람료 및 입장료를 포괄하는 교양 오락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
 - 교육 부문에서 공납금과 교과서를 제외한 사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참고서에 대한 지출보다는, 강습료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

< 식료품, 교양 오락, 교육 부문에서의 서비스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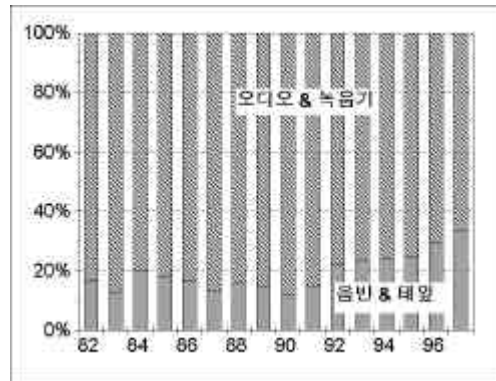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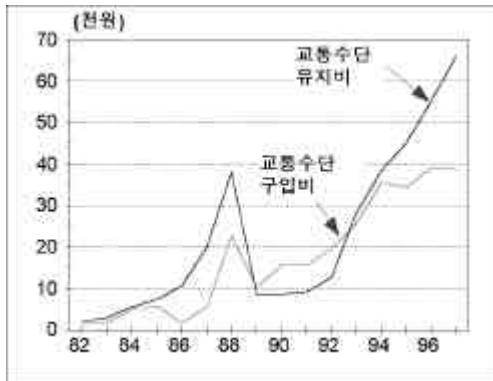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도시가계조사

- (소프트웨어 부문의 확대) 내구재나 비내구재 성격의 항목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성격이 강한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함

- 개인 교통 부문의 경우 80년대 후반 자동차 등 교통 수단에 대한 구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둔화되는 반면, 보험, 휘발유, 수리 유지 등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
- 하드웨어 성격이 높은 오디오 및 녹음기와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한 음반을 비교할 때도 80년대 후반에는 하드웨어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<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>



자료 : 통계청, 도시가계조사

□ 소비 구조의 변화가 지식 경제에 주는 시사점

- (지식 경제를 위한 기반 성숙) 우리나라의 소비는 80년대에 하드웨어의 기반을 형성하고, 9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化, 소프트化가 본격적으로 진행

- 80년대는 높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함께 자동차, 가전 등 하드웨어 성격이 짙은 내구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그러나 90년대에는 서비스 부문이나 소프트웨어 성격이 큰 소비 비중이 확대됨
- 이는 80년대에 형성된 소비의 하드웨어 기반을 바탕으로 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- 따라서 인간의 지적 창조 활동에 기반을 둔 소비 여건은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

■ 이태열 연구위원 tylee@hri.co.kr ☎724-4012